

서민들에 외면받는 광주도시공사 '서민주택'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교통·학군 열악 151가구 빈집 가구당 6700만원 제한에 묶여 여건 좋은 집 매입 한계

광주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사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매입한 다가구주택의 교통여건과 학군 등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입한 주택도 빈집으로 남아있는 등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15억원을 들여 아파트와 원룸 등 870가구를

매입했다. 매입 비용은 국비(45%)와 국민주택기금(50%)으로 조달하며, 입주자는 나머지 5%의 보증금과 임대료만 부담해 거주하게 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다.

문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지만 정착 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는 곳은 총 151가구로, 5가구 중 1가구꼴이다. 도시공사나 LH가 관리하는 영구임대

및 장기임대아파트는 입주 대가족이 4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외면받는 것은 졸속 추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입한 주택의 교통여건과 학군 등 정주여건이 입주 대상자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구나 광산구 등의 번두리 지역의 원룸 등은 선호도가 크게 떨어져 빈집이 몰려 있다. 또 매입 물량도 자치구 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과도 동떨어지는 등 주택구구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주택 매입자금이 가구당 67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더 심각한 것은 도시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를 반납하는 등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제한돼 있어 대상자 폭이 그리 넓지 않은 데다 공실이 적지 않아 수익원에 달하는 관리비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매입자금을 LH공사(9600만원) 같은 규모로 상향하거나 관리비 지원, 전세임대사업 추진 등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대통령 13~16일 방미 ... 16일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166명 사상최대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이하 미국 현지시각) 미국을 방문, 16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문제 등에서 양국 간 공조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지난달 초 중국의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것이자 10월말~11월초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만큼 올해 한번



도 및 동북아 외교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역대 대통령 중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1년 10월 방문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한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는 166명 규모의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사절단의 84%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됐다. /박지경기자jzkpark@



터키 앙카라 폭탄테러 95명 사망
지난 10일(현지시각) 터키 수도 앙카라 기차역 광장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집회 참가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뒤쪽에 화염이 보인다. 이날 오전 앙카라 중심지에서 발생한 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사망자가 95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노동조합연맹 등 반정부 성향 단체와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 지지자를 비롯한 친쿠르드계 단체가 집회를 열기 위해 모인 앙카라 기차역 광장에서 발생했다. /연합뉴스

명량대첩축제, 관람객 증가·수익 창출 '대성공'

지난 9일 해남과 진도 울돌목에서 열린 2015 명량대첩축제가 11일 막을 내렸다.

전남도는 11일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진 해남 충무사에서 열리는 약무호남제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꾸며 관람객 증가와 수익 창출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일 오전 진도 울돌목 바다에서 열린 해전 재현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130여명의 어선이 동원, 실감나는 전투 장면을 연출하고 선박 치장물 및 특수효과도 가미돼 입체감 있게 재현됐다.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6대, 헬기 3대, 립보트 2대 등도 등장했으며, 명량대첩축제 주제작품을 직접 프로그램화해

군악대가 공연해 눈길을 끌었다.

전통 장례절차인 만가(輓歌)를 축제 프로그램화한 만가 행진도 외국인 500여명 등을 포함한 1100여명이 480m 길이의 진도대교를 행진하며 지내는 평화노제로 치러졌다. 울돌목 물살체험, 투구·갑옷·판옥선 모형 만들기 등 10개 유료 참가 프로그램에는 4000여명이 참여해 1500만원, 특산품 판매장 3500만원, 향토음식점 3억원 등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명량대첩축제는 전남도 대표축제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해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은 명량대첩의 전승을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간전문가 통해 소통행정 넓힌다

정책자문관 13명 위촉 주요 정책 협의·조율

광주시가 최근 정책자문관을 잇따라 위촉하는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넓혀가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혁신도시 정책자문관으로 정진욱 새정치민주연합 정책부의장을, 교육 정책자문관으로 정희근 전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의 정책자문관은 총 13명이다. 분야별로는 ▲대외협력 윤석루 ▲민자도로 문평섭 ▲국제교류협력 신경구 ▲공동주택관리 조성철 ▲중국교류협력 신정호 ▲관광 강신겸 ▲비전·투자 김용구 ▲도시철도 문동주 ▲도시농업 김길용 ▲통일 백학순 ▲문화 박명성 등이다.

정책자문관 제도는 지난 2009년 5월 광주시장 훈령으로 '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을 제정,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 해당 실과에서 위촉해 연구과제나 정책

자문·조율 등의 역할을 맡고 있고, 활동실적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은 시정 주요분야에 전문 학식과 균형자적 시각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초빙해 정책결정을 위한 수시 자문과 주요현안의 해결방안 제시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현재 각 분야 정책자문관들은 현장에서 뛰는 실무형 전문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 방일



이낙연 전남지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한일 해협연안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11일 일본 오카야마현 마니와시 바이오메스타운을 방문한 이 지사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활용하는 마니와 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숲 속의 전남' 미래 모습을 구상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외국인 눈높이 맞춘 관광명소·축제 발굴

전남도 유학생 관광홍보대회

전남도가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전남 관광명소와 음식, 축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남 관광홍보대회를 갖는다.

선정된 유학생들의 사진, 소감, 추천글 등을 참조해 새로운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전남도는 11일 "광주·전남 지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남 관광홍보대회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관광홍보대회는 '코스 개발'과 '온라인 홍보'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유학생이 전남 주요 관광명소와 남도

음식, 축제현장, 한국방문위원회(www.mustseeroutes.or.kr)에서 추천하는 전남지역 관광지 등을 방문해 사진과 함께 소감, 추천 글 등을 유시시(UCC), 블로그에 게재하면 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 등은 모두 4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상은 각 부문별 최우수상 1명에게 상금 150만원과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고교 왕복항공권, 각 부문별 우수상 9명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주어지고,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이 제공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장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